

중세 일본의 상인의 등장과 樂市樂座*

-座(자)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해체를 중심으로-

이 덕 훈**

(e-mail: dhl1956@yahoo.co.kr)

目次

1. 시작하는 말
 2. 길드와 座(자)의 선행연구
 3. 중세 상인의 출발
 4. 座의 등장과 발전
 5. 근세 상인과 라쿠이치 라큐자의 등장
 6. 맺는 말
-

1. 시작하는 말

중세유럽의 길드(guild)는 일반적으로 중세도시가 성립·발전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상공업자의 동업자조직이다. 그러나 길드라는 의미는 뜻이 넓어서 그 중에서 공동제사(共同祭祀)·상호부조(相互扶助)에 의해서 맺어지면서 중세 초기에 일어났다가 없어진 고(古)길드나 나중에는 정치길드 등도 포함되지만, 중세도시경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뜻을 지니게 된 것은 상인들에 의해서 결성된 상인길드 및 수공업자들의 동직길드(craft guild)이다.

중세 일본의 길드로 불리는 座(자)는 장원영주에 소속된 本所로부터 특권을 받은 상공업자, 교통운수업자등의 집단을 지칭하며 供御人(쿠고닌) 駕輿丁(가요초) 神人(지닌) 寄人(요류도) 등의 집단이 등장하여 초기의 자를 이루었다.

* 본 연구는 2012학년도 한남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중세전기에서는 座(자)의 구성원인 座衆은 노동봉사와 공납생산한 대가로서 本所에서 과역면제의 특권 등을 부여 받았지만 중세후기가 되면서 자의 구성원인 座衆의 자립성이 높아지면서 봉사 공납보다는 영업 판매가 중심이 되었다.

座는 상품판매의 독점을 이루어 때로는 상품의 운반로 나 운송구의 독점도 이루었다. 그리고 모든 노역과 검문소의 세금면제나 전매특권 등을 요구하여 상공업자가 座에 가입하면서 本座와 新座의 다툼도 생겼을 정도이다. 근세에 들어오면서 라쿠이치 라쿠자 정책에 의해 거의 모든 자가 해체되었지만 일부는 에도막부에 특권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중세 서양의 상인 길드(Guild Merchant)의 전매와 독점에 반발하는 수공업자들은 직업별 수공업 길드(영어: craft guild, 독일어: Zunft)를 결성하고, 상인 길드에 대항하여 시정 참여를 요구했다. 수공업자 길드는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수공업자들이 다른 도시의 수공업자와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려는 목적에서 탄생하였다.

이런 수공업자들은 그들 사이의 경쟁을 규제했으므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도시의 번영을 전체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단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폐쇄성은 역풍을 불러일으켜 시민 계급의 성장을 촉진시켰고 폐쇄적이고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길드의 해체를 앞당겼다.

본 연구에서는 서양의 길드가 상인길드에서 수공업길드로 변천하면서 시민의 참여 및 시민계급의 성장으로 변화하며 길드 등의 해체를 이룬 것과 대비하여 중세일본에서의 상인의 등장과 일본의 길드로 불리는 일본의 座(자) 즉, 일본의 동업자적 조합 형태인 길드형의 座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해체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헤이안 시대(平安時代)부터 센코쿠시대(戰國時代)까지 존재했던 일본의 상공업자, 예능인등에 의한 동업자조합인 자(座)를 중심으로 중세일본에서의 상인의 등장과 자의 성립과 보급, 특권 등을 살펴보고 라쿠이치 라쿠자(樂市樂座)의 등장으로 나타난 자의 폐지와 해체 등을 중심으로 중세일본의 상인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길드와 座(자)의 선행연구

2-1. 중세유럽의 길드에 관한 선행연구

중세 유럽의 중세 도시에서는 도시 상공회(chamber of commerce의 일종)를 통한 시정 운영으로 도시 성립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대상인(원격지 상인)에 의해 조직된 상인 길드(영어: Guild Merchant 독일: Zunft)가 독점하고

있었다. 상인길드는 11세기경에 나타나 그 후 100여 년 간 도시국가의 일부기구로 인정되어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상업상의 독점과 시민의 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3세기 이후부터는 상인길드의 기능이 점차 변형되어 길드와 행정기관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동할 때도 있었다. 본래 상인길드는 상인들끼리 모여 상부상조하며 조합원으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족된 것인데 나중에는 정치 집단화되는 경우도 있었다.¹⁾

예를 들면 길드의 한 종류로 알려진 영국 런던의 머천트 어드벤처러 (Merchant Adventurers of London)라는 회사의 모습은 상인들에게 부가되는 규율적인 면에서 길드가 성원들에게 부가하는 규율과 유사 했다.²⁾ 즉, 구성원은 형제들이고 부인들은 자매들이다. 형제들은 종교일과나 장례식에 함께 참석 한다.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한다든지 거친 욕설을 한다든지 취하도록 술을 마신다든지 보기에 어색한 모습을 해서는 안 되었다. 또한 말싸움, 모욕, 결투 등도 금지된 도덕적인 종합체이며 법인체였으며 상업적인 독점권을 누리고 있고 항구적인 승계특권을 가지고 있었다.³⁾

이러한 길드의 연구는 1920년, 30년이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어 독일의 브라운(H. Braun)과 영국의 오 도넬(T. O Donnell)은 중세유럽의 길드에 관해 상호부조의 활동을 지적하며 시작되었다.⁴⁾ 브라운은 길드의 목적은 종교적 목적을 별도로 총괄하자면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 보고 오 도넬은 길드의 기능적 특징을 보험 조합 적 기능의 자선 단체적 특징으로 보았다.

제2 차 대전 후 특히 1970년대 이후 사회학, 경제사, 법제사의 분야에서 중세봉건사회에서 특정의 역사적 의의를 갖는 중세도시에 관한 새로운 시점이 등장하여 길드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 등장하였다. 1970년대 이후가 되면서 중세유럽의 도시를 슐츠(H. Schulze)에 의하면 도시 공동체의 구성원이 상인, 수공업자의 길드 구성원 등 의 상공업자와 도시영주의 가신단인 기사 등 특정의 도시주민에 한정되어 있으며 법적인 의미의 시민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만을 지칭한다.⁵⁾ 중세도시는 완전히 평등한 시민이 아니고 오직 영주 층 의 거주 지역으로서 이용되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도시는 상인, 수공업자에 집주하

1) 지윤, 사회사업사, 흥익제, 1985, pp.88-90

2) Ephraim. Lipson, The Economic History of England Vol. 1 (12th edition, 1959), pp.570-84

3)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옮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2-2, 까치, 1996, p637

4) Braun, H., Geschichte der lebensversicherung und lebensversicherungstechnik, 1925, ss13-16; O'Donnell, T., History of life insurance in its formative years, 1936, pp61-70

5) Hans K. Schulze - Grundstrukturen der Verfassung im Mittelalter 2 vols, 1985. 千葉徳夫訳, 西歐中世史事典、一國制と社會組織、ミネルヴァ書房、1997

는 중세도시로의 전환이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⁶⁾ 법제사적인 의미에서의 중세도시의 성립의 원동력이 시민의식과 완전자치권으로 이어지면서 상인 길드 등 특정계층의 집단이 도시법의 단계에 승화하지 않고 상인 법에 기초하여 특권을 부여하여 이것이 도시공동체의 모태가 되었던 것이다.

사회학적견지에서는 길드를 유럽중세사회의 여러 가지의 인간의 사회적 연대 즉, 사회집단속에 자리매김 하려는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즉, 형제단의 개념을 명확히 하면서 각각의 형제단에서 길드의 의의를 고찰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⁷⁾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중세유럽의 길드를 중심으로 사회적 결합에 관한 논문이 간행되고⁸⁾ 아울러 신진의 역사학자들의 사회집합론이 수록되어 길드론의 새로운 시점과 시각의 필요성이 시사되고 있어 일본의 座도 새로운 시각에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길드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면서 우선 법제사와 사회학의 사적연구에서 길드가 사회단체의 한 형태로서 자리잡고 있음이 주목된다.

선서단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conjuratio*(집단적 서약)를 기원으로 독일어에서는 *Eidgenossenschaft*(선서단체) *Schwurbruderschaft*(선서형제단) *Bruderschaft*(형제단)으로 표현되고 우리말로는 선서단체나 선서공동체 형제단의 역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학적으로는 유럽의 중세사회를 통해 사회적결합의 원리에 기초한 공동체로서의 집단의 형태로서 상호결속하고 상호 부조적 기능 또는 사회적 자선구제를 행하는 사회집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형제단은 첫 번째 중세봉건사회의 확립이후 도시의 도시공동체나 상인, 수공업자길드에 의한 보호 밖에 있는 수공업자의 직인 등의 계층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상인, 수공업자 길드가 도시공동체의 부분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지적이다. 상업의 발전과 길드제도에서 同職길드가 중세도시의 부분공동체로 간주된다고 보고 있다. 도시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형태의 선서단체가 형성되고 그중에서도 상인, 수공업길드가 도시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기도하다. 이 말은 도시공동체가 상인, 수공업길드를 중심으로

6) 鯖田豊之、大陸の都市と農村—經濟的側面、岩波講座 世界歴史 10、岩波書店、1970、p366

7) 阿部謹也、中世の窓から、朝日新聞社、1981. 阿部謹也、甦える中世ヨーロッパ、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部、1987. 増田 四郎、西欧市民意識の形成、講談社学術文庫、1995. 増田 四郎、西洋中世世界の成立 講談社学術文庫、1996

8) 森義信、フランク王国の國家原理、『講座世界歴史7・ヨーロッパの誕生』、岩波書店、1997. 河原温、フラテルニタス論、『岩波講座世界歴史8 ヨーロッパの成長』岩波書店、1998. 早川 良弥、社會的結合、佐藤 彰一、早川 良弥 編著、西欧中世史〈上〉—繼承と創造(MINERVA西洋史ライブラリー、1995

형제단을 포함한 많은 선서단체위에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도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종교의 3기능을 중심으로 갖는 공간적 개념이며⁹⁾ 도시공동체는 도시의 시민이라는 특성의 계층의 권리보호와 상호부조를 위한 인적결합체로서의 범위를 확대하기에 이른다. 지금까지의 과거의 길드는 대외적 독점과 대내적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는 보수적단체로서의 이미지였지만 길드의 사회적 통합기능과 길드제를 기초로 한 사회적 연대와 사회참여도 포함하고 있다.

2-2. 일본형길드 座(자)에 대한 선행연구

그라페(Regina Grafe)와 겔더블롬(Oscar Gelderblom)등은 유럽 길드의 발전을 비교하면서 중세에서의 성장과 근세에서의 쇠퇴를 비교하였다. 길드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생산되는 제품의 질의 향상과 표준화를 위하여 제조과정을 서로 감독하는 것이 주된 목적 이었다. 그러나 이 길드 역시 상인길드처럼 상품생산의 조절 등 행정적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¹⁰⁾ 서양의 길드와 비슷한 형태의 조직이 일본에서 등장한 座(자) 이다. 중세의 장원제도는 장원을 군사적, 경제적 기본단위로 하는 사회체제인데 길드형태의 동업조합은 서양과 일본말고도 중국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¹¹⁾

중세일본경제의 연구에서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에 고도로 발달한 상품유통이나 수공업의 각종제도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근세일본경제의 기반을 이루었다고 하는 상인의 등장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세의 상인의 등장과 座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쩌면 더욱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座(자)에 대한 연구는 중세와 근세 일본에서의 상인들의 단체 즉 자의 카부나카마(株仲間)에 대한 연구¹²⁾ 가 있으며 또한 자의 종교적 단체로서의 연구

9) 城戸照子、集村化、都市、江川温・服部良久編著『西欧 中世史[中]：成長と飽和』、ミネルヴァ書房、1995、p130

10) Regina Grafe, and Oscar Gelderblom. "The Rise and Fall of the Merchant Guilds: Re-thinking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ercial Institutions in Premodern Europ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Spring 2010, Vol. 40 Issue 4, pp 477-511. 唐沢達之、ヨーロッパギルド史研究の一動向、——オーグルヴィとエプスタインの論争を中心に——」産業研究、45巻2号、2010年

11) 今堀 誠二、清代のギルドマーチャントの 一研究 内蒙古朝陽村の調査、内田直作名誉教授古稀 記念号、成城大学.1976

川原勝彦、中国同郷団体の改造・解体過程(1945-1956年)——山東. 旅滬同郷団体の事例を中心に」《アジア研究》49(3)、2003年7月、第38-53、根岸 侑、中国のギルド、日本評論新社、1998.

12) Tetsuji Okazaki, 2004. "The Role of the Merchant Coalition in Pre-modern Japanese Economic Development: An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CIRJE F- Series CIRJE-F-284, CIRJE, Faculty of Economics, University of Tokyo. 岡崎哲二「江戸の市場経済 歴史制度分析からみた株

13)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미야자(宮座)의 연구는 신사를 중심으로 한 촌락의 연구가 주목적이며 宮座는 신사와 촌락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전형적인조직¹⁴⁾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논하자면 자에 대한 연구는 권력의 예속 하에서 이루어진 중세 일본상인들의 동업협력체라는 구조론적 견해¹⁵⁾와 상인들의 횡적연대로 보는 경영사적인 견해¹⁶⁾로 분류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구조론적 견해는 일본형 길드인 중세 상인들의 동업협력체인 座를 중세경제구조의 유지라는 점에 위치해 놓음으로써¹⁷⁾ 권력과의 공생관계를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세의 상인을 근세의 상인과는 다른 위치에 놓을 때 불가결의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에 비해 경영사적인 연구는 座를 영주와의 예속관계가 아닌 단순한 상인들의 횡적연대조직으로 보는 견해이다.

3. 중세 상인의 출발

3-1. 중세일본에서의 상인의 등장

일본의 중세는 서구의 역사학을 비교하여, 일본의 역사에 적용시킨 것으로

仲間」1999年、講談社選書メチエ. 落合功 「享保期における都市の変容と問屋仲間—大坂塩問屋仲間を中心として—」(藤野保先生還暦記念会編 『近世日本の社会と流通』1993年、雄山閣

13) 浦西 勉, 近江の宮座と神道家との関係の検討, 近畿民俗学会第33回年次研究大会, 2003年11月24日, 真野純子, 近江三上の宮座にみる歴史と伝承—公文と座をめぐる—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書, 2011-01, 倉石忠彦 「宮座」(『国史大辞典 13』(吉川弘文館, 1992年, 橋本章, 宮座研究における近江の位置, —宮座論の形成と展開における滋賀県下事例の意義 について—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書, 2011-03

14) 山本 正和, 戦後近江の村落における宮座研究の方向, 社会科学(26), pp71-98, 1979年 同志社大学人文科学研究所

15) 宮本又次, 株仲間の研究, 日本経済史研究所研究叢書, 有斐閣, 2003, 林玲子, 江戸問屋仲間の研究, お茶の水 書房, 1967年, 布川 清司, 江戸商家奉公人の倫理—江戸木綿問屋・田端屋の「江戸用事控」から, 日本歴史(186), 1963-11, 吉川弘文館 松島 栄一, 北島正元編著 「江戸商業と伊勢店—木綿問屋長谷川家の経営を中心として—」 日本歴史(168), 1962-06 吉川弘文館. Avner Grief, "Contract Enforceability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Early Trade: The Maghribi Traders' Coal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3(3), 1993. June, pp. 525-48

16) 黒田俊雄 座的構造論と宮座研究(黒田俊雄と歴史学<特集>) 歴史評論(528), pp39-47, 1994-04 脇田晴子 日本中世商業発達史の研究 御茶の水書房 1969

17) 賀川 隆行, 江戸木綿問屋長谷川家の経営の転換, 三井文庫論叢(33), 1-108, 1999, 賀川 隆行, 元禄・寛政期の江戸呉服木綿問屋柏屋孫左衛門店の経営, 三井文庫論叢(38), 1-60, 2004, 白石 孝, 織物問屋群生化的町の史的考察—日本橋長谷川町と富沢町のケース, Mita business review 48(3), 57-70, 2005-08, 伊東 弥之助, 両組木綿問屋仲間の成立過程より見たる初期の江戸商業組織, 三田学会雑誌 43(4), 48-62, 1950-04, 慶応義塾経済学会

고대사회가 쇠퇴하면서, 근세사회가 나타나기 이전의 시기를 칭하고 있다. 중세의 시기에 대해서는 논자에 의해 다르지만 10세기부터 12세기에 걸친 시기가 일반적인 시작이며 끝은 16세기로 보고 있다. 고대나 근세가 명확한 집권 국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중세는 권력의 분권을 기조로 하고 있어서 중세의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¹⁸⁾

11세기의 後三条天皇의 시대부터를 중세로서 취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회경제의 시스템으로서의 莊園公領制가 명확한 제도로서 등장하여, 정치체제로서의 院政도 보이기 시작했던 것도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¹⁹⁾ 일본중세의 본연의 모습을 규정한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역사적 전제조건인 율령체제의 구조로 보고 있다.²⁰⁾

일본중세의 상인은 영업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유력한 권문세가의 보호가 필요하였다. 과중한 세금을 피하거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분이라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상업이 장원영주의 허락 하에 잉여생산물의 거래를 주체로 행해진 당시에는 영주의 종속 하에 상인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처음에는 公家(조정에 출사하는 사람)나 신사와 절에 종속되어, 봉사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²¹⁾ 종속이라 하더라도, 노예가 아닌, 반정도 독립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권문세가의 예속하에 이루어진 상인들은 조정에 출사하는 사람(公家)에 대해서는 쿠고닌(供御人, 황궁 음식담당), 카요초 (駕輿丁, 가마꾼), 신사의 예속하에 등장한 지닌(神人), 사원의 예속 하에 등장한 상인은 寄人(요루도) 聖(하지리) 坊人(보즈) 公人(고진)으로 나뉘어 그 이름이 다르나, 중세의 일본상인은 거의모두 이러한 형태로 신분을 취득하여 상업 활동에 종사하였던 것이다.

3-2. 중세일본상인의 종류

1) 쿠고닌(供御人, 황궁 음식담당)

쿠고닌 은 원래 천황의 식사담당을 지칭하지만 중세에는 식품뿐만이 아닌 수공업제품등 천황이 사용하는 각종의 물품을 공납한 사람, 또는 그 집단을 쿠고닌이라고 한다.²²⁾ 궁중에 부속되어 있던 쿠고닌은 본래 궁중의 천황에게 바치는 음식, 즉 수라상의 재료인 어패류·채소과일류(야채, 과일)를 생산 포획하여

18) 広瀬薫雄、秦漢律令研究、2010年、汲古書院、第1部第1章「律令史の時代区分について」

19) 永原慶二監修『岩波日本史辞典』岩波書店、2000年

20) 永原慶二、日本の中世社会、岩波書店、1968、p16

21) 網野善彦『日本中世の百姓と職能民』平凡社、2003年

22)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2009

이것을 상납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따라서 그것은 御厨(미쿠리야)²³⁾·網代(아지로)²⁴⁾、御贄所(미니에 도코로)나 御園(미소노)²⁵⁾ 등의 성립과 동시에 설치된다. 문헌적으로는 近江(오미)의 愛智郡御雉子所の 供御人 이나 오오이료(大炊寮)의 미네덴(御稲田)²⁶⁾의 쿠고닌이 가장 오래되었다.

쿠고닌중에 유명한 것은 수라상 등을 준비하는 미쿠리야의 쿠고닌이며, 후에 内蔵寮(쿠라료)의 우두머리가 内善司御厨子所の 대신을 겸하게 되어, 쿠라료(内蔵寮)의 쿠고닌이라 칭했다. 여기에 어류를 헌납하는 今宮·六角·및 카미카츠라(上桂)의 供御人 및 鳥供御人이 있으며 야채 헌납의 쿠고닌 으로서 精進御園, 大和座·木幡竹子, 宇治菓子供御人이 있었다. 또 토노모료(主殿寮)²⁷⁾에는 小野山供御人 또는 사쿠테(作手)²⁸⁾ 카몬료(掃部寮)²⁹⁾에는 莚御作手들이 속해 있다. 무로마치(室町)시대가 되면, 쿠고(供御)의 이름도 상당히 널리 사용되어 식탁에 제공되는 것 이외는 각종 잡화를 헌납하는 것까지도 이것에 포함되게 되었다.

쿠고닌 중에서 가장 활약한 것은 철이나 구리를 주조로 하는 직업인 이모지(鑄物師)³⁰⁾였다. 그들은 가마쿠라(鎌倉)시대부터 関銭³¹⁾을 내지 않으며 냄비, 가마솥, 가래, 호미는 물론 비단 곡식 에 종사했다.

카요초의 신분을 갖기 위해서는 祇園社大宮의 카요초였던 今宮의 어물상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가장 유명했던 것은 궁중의 카요초 였다. 카요초들은 평시에, 左右近衛府와 左右兵衛府의 4府에 속하여 興宿(가마꾼 숙소)에 종사하고, 천황의 행사에 호랜(鳳輦, 천황이 타는 것)을 짊어지는 것을 임무로 했다. 무로마치시대가 되면, 교토(京都)의 상공업자 중 카요초의 집단에 들어가는 자

23) 御厨(미쿠리야)는 「厨(くりや)」 즉 「부엌」의 경어적 표현이다. 중세일본에서는 황실이나 이세신궁 등 유력한 신사의 장원(神領)을 의미하며 후에는 지명또는 성명으로 남았다

24) 어망을 의미하거나 定置網의 어장. 또는 언제나 어군(魚群)이 모여있는 장소.

25) 일본의 고대, 중세에 존재했던 伊勢(이세)의 신궁신령의 일종이다. 본래는 신에 바치는 야채류를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며, 현재에도 미에현의 伊勢市二見(ふたみ)에 1만9969평방미터에 신궁 御園(미소노)에, 신에게 바치는 계절에 따라 야채, 과일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 이것과는 별도로 율령체제의 붕괴와 함께, 신궁경제를 지탱해온 神郡·神戸(じんこ)(かんべ)의 제도에도 변화가 생겨, 신궁사관의 손에 의해 神領이 개발되어, 이것을 御厨(미쿠리야), 또는 御園(미소노)라 칭했다.

26) 일본국왕의 수라상에 내놓은(供御) 쌀(供御米)를 만드는 논밭, 쿠고덴이라고도함

27) 主殿寮는 율령제에서 宮内省에 속했던 기관. 토노모료 또는 토노모리 즈카사 라고 한다. 궁의 소모품의 관리·공급을 주로 담당했다.

28) 중세일본의 백성의 莊園, 및 公領에 대한 경작권을 나타내는 말

29) 율령제에서 궁내성에 속하며 청소를 담당했던 곳

30) 철이나 구리를 주조로 하는 직업

31) 関銭(세키센)은, 중세일본에서의 교통의 요지에 설치된 관소를 통과하는 사람이나 배, 화물 등에 대해 징수한 통행세

가 많았으며 과역 면제의 특권을 얻어 활약했다.

2) 神人(지닌)

신 율령제 에서 궁내성에 속하며 청소를 담당했던 곳 즉, 社에 속하는 자에 神人(지닌)³²⁾이 있다. 전문적인 신관은 아니나, 속세인 으로서 신사에 봉직하고, 祭儀 그 밖의 잡무를 담당하는 자를 총칭하여 지닌(神人) 이라 한다.³³⁾ 신센(神賤)³⁴⁾이나 카미야코(神奴)³⁵⁾에 계보를 갖는 자도 있는데, 그것이 과세나 부역면제의 특권을 제공받고 있어, 헤이안(平安) 말기 이후, 신사부근의 백성이 과세와 부역을 피하기 위해, 지닌 이 되는 자가 점차로 많아졌다. 石清水·賀茂·住吉·日吉·北野·祇園·春日 등, 교토나 나라(奈良)의 큰 사원에는 반드시 이 지닌이 속해 있다. 그 중에서도 오야마자키(大山崎)의 지닌 은, 등유 판매의 특권을 얻어 여러 지방을 행상하며 다녔다. 히에사(日吉社)의 쇼신지닌(聖眞子神人) 등은 建保 3년(1215년) 경, 여러 지방의 물건을 실어 泉州, 堺 津에 선착했다고 한다. 히에지닌(日吉神人)도 상당히 널리 전국에서 활약했다고 생각된다.

기온사 (祇園社)에는 이누지닌(犬神人)이 부속되어 있었다. 이누지닌의 첫 번째 일은, 祇園社의 제례 때에 경내의 경호를 담당함과 동시에, 평상시는 경내의 청소를 하며, 부정한 것을 버리는 데에 있었다.

3) 寄人(요류도)과 聖(하지리)

요류도(寄人)란, 자기가 속한 신사나 절 등의 영지 외에 있으면서, 그 신사나 절과 특수한 예측관계를 맺은 자로, 상인이나 職人(목수, 미장이, 이발사 등)으로 요류도 가 되는 자가 많았다.³⁶⁾ 興夏社에서는 符坂의 기름 상인이 春日社의 白人神人으로, 一乘院의 寄人이 되어 있으며 召人(메지우토)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면, 建仁1년(1201년) 8월26일 藤原定家 가 和歌所寄人에 임명받은 것이 定家の 일기 인 明月記 의 同日条에서 확인된다. 또한 현재의 궁중의 歌會始의 메지우토도 이것에 유래한다.³⁷⁾ 延曆社에서도 袴(하카마:일본옷의 겉에 입는 아래옷)를 파는 상인이 根本中堂의 요류도 로 인식되고 있다. 山門에

32) 지닌, 진닌 또는 「神民(신민)」이라고도 한다. 중세의 신사에 속한 봉사자신분으로 神主, 禰直 등의 본래의 신직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일반의 귀족·사원의 경우의 寄人(요류도よりゅう)에 해당된다.

33) 小林 茂, 三浦 圭一, 脇田 修, 芳賀 登, 森 杉夫 『部落史用語辞典』, 柏書房, 1990年

34) 신센 신사에 예속하여, 神領田畠(신사에 속한밭)의 경작이나 신사의 조달품제작이나 그 외의 잡일에 종사한 노비로 자유스러운 이동, 혼인은 허락되지 않았음

35) 카미야코는 신사에 속해 청소나 잡일을 하였던 천민

36) 木村茂光 「寄人」 『日本史大事典 6』 平凡社, 1994年

37) 関口力·泉谷康夫 「寄人」 『平安時代史事典』 角川書店, 1994年

는 公人이라 칭하여, 그 잡무에도 임하는 자가 있었다. 히지리(聖)³⁸⁾라는 것은, 승려로 여러 지방을 행각하는 자인데, 그 중에는 상품을 팔러 다니는 자도 있었다. 원래 히지리(日知^り) 라는 뜻의 의미로 태양의 사제자, 주술자를 지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불교전래후 에는 聖 이라는 글씨가 주어져 학덕이 높은 중을 호칭하기도 하였다. 고우야 히지리(高野聖)도 여러 곳을 다니는 것을 본질로 하면서, 약·의복 그 외의 상품을 휴대하여 부처를 미끼로 장사를 하는 타락한 중의 대표로 되었다.

그 외에, 쿠고닌, 지닌 등, 公家(조정에 출사하는 사람)나 신사나 절에 종속하는 봉사자의 종류를 들었는데, 이 중에는 고대의 천민 계보를 잇는 자가 적지 않았다. 특히 内膳司의 쿠고닌 중에는, 어업 취락에 본거를 둔 자가 있으며, 그곳은 산조(散所)로서 특별 취급을 받아 왔다. 가츠라쿠고닌(桂供御人)의 주소가 가츠라 산조(桂散所)라 불리운 것은, 그 한 예이다. 교토의 九条에는散所座가 있고, 寢藍의 생산·판매를 하고 있었다. 春日社の 白人神人이었던 符坂의 기름 판매도 이 散所 계통으로 생각된다. 散所는 宿者·坂者와도 동류이다. 祇園社の 기록에 의하면, 西岡의 숙소도 山門의 西塔院轉法輪堂寄人과 함께 祇園社の 이누지닌(犬神人)이 되어, 수년 이래 소금 매매를 업으로 하고 있다.

4. 座의 등장과 발전

4-1. 座의 등장

座(자)는 헤이안 말기부터 나타나 가마쿠라, 무로마치(室町)期에는 수공업자나 상인뿐 만 아니고 유녀(遊女)나 예능인 등 모든 직업별로 편성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러한 직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요류도와 지닌 이 되어 과역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조정 사절, 신사, 권문세족의 밑에서 조직으로서 좌에의 가입을 하였다. 이러한 봉사하는 곳을 혼조(本所)로 불렀다. 本所는 성격에 의해 座의 구성원을 供御人·寄人·神人·등의 신분으로 편성하여 직능에 의해 봉사를 하는 대신에 과역에서 면제하는 등 보호를 해주었다.³⁹⁾

座의 정의에 대해 17세기당시(1603년)의 포르투갈어의 사전의 설명을 소개하기로 한다. ⁴⁰⁾ 座는 어느 물품을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팔기 위해 사람들이

38) 聖(히지리) 는, 근세 일본에서 여러지방을 돌아다니는 불교승을 말한다.

39) 笹本正治、日本の中世 3 異郷を結ぶ商人と職人、2002、中央公論社、p27

동료(仲間)를 만들어 연결하는 대차협정, 또는, 매매협정을 지칭 한다⁴¹⁾고 소개하고 있다.

가마쿠라(鎌倉)시대에 들어오면서 대도시나 상공업도시를 중심으로 자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교토에서의 후일의 니시진(西陣)의 율류가 된 오오도네리(大舎人)의 오리테자(織手座)⁴²⁾나 기온신사(祇園社)의 면자(綿座)·비단자(錦座), 오야마자키(大山崎)의 기름자(油座), 셋츠(摂津) 이마미야(今宮)의 어자(魚座), 가마쿠라(鎌倉)의 재목자(材木座) 등이 있으며, 나라의 興福寺나 오미(近江)의 日吉大社도 다수의 자를 두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座는 거래의 독점을 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상품의 운반로와 운송구의 독점까지 겸하고 있다. 또한, 本所의 정치세력을 배경으로 関所(세키쇼)⁴³⁾의 통행세나 시장에서의 영업세의 면제특권을 취득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전매를 확립한 시장에서는 자이외의 상인의 영업을 금지하며 座(자)그룹에 의한 독점을 피하여, 座에 속한 소규모업자의 유지를 중심으로 한다. 또는, 座그룹의 제휴등도 빈번히 행해져 생산지의 座와 소비지의 자가 제휴하거나 대도시의 자가 지방의 자를 지배하는 것도 이루어 졌다.

그러나 무로마치(室町)시대에 들어서면서 座(자)를 둘러싼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교토의 관아를 포함한 영주 권력이 강화되어 자의 권위를 무시하여 영업세를 가하거나 지방의 상공업자가 지역의 영주와 결부하여 자의 권위 타파를 피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자도 변질하여 가면서 조정의 本所에서 자립한 영업집단으로 변화하거나 관아나 영주와의 결부를 강화하여 그중에는 새로운 本所같은 것이 출현하거나 구성원의 수를 제한하여 세습특권화를 시도하려고 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신흥 상인 측도 新座로 불리는 자를 결성하여 기존의 자와 같은 특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그리고 마고자(孫座)라 불리는 제3의 座 조차 나타나는 예도 있었다.

4-2. 座의 성장과 발전

상인 중 쿠고닌(供御人)이나 카요초(駕輿丁) 지닌(神人) 등의 신분을 갖는 자는, 대부분 모든 座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쿠고닌이나 지닌이 설정된 곳에, 座가 성립되어 있다는 예측도 성립된다. 아카마츠(赤松俊秀)⁴⁴⁾는, 延喜

40)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초기에 걸쳐 일본어에 포르투갈어로 설명을 덧붙인 日葡辞書(にっぽじしょ)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本編は1603年, 증보편은 翌年刊行)

41) 笹本正治, 日本の中世3, 異郷を結ぶ商人と職人, 2002, 中央公論社, p28

42) 오리테(織手)는 견직물의 직인을 말함.

43) 関所(세키쇼)는, 교통의 요지에 설치된 징세나검문을 위한 시설이다.

(901-922년) 경,畿内⁴⁵⁾의 각지에 오오에노 미쿠리야(大江御厨)⁴⁶⁾ 등의 미쿠리야(御厨)가 설치된 사실에서, 초기부터 座가 조직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닌(神人)도, 이 시기부터, 설치되었다고 보고 있다. 祇園社の 材木座등도 元慶 3년 (879년), 陽成天皇이 堀川12町을 신사령 으로 기증하여, 재목 상인을 지닌(神人)으로 보충한 것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綿本座도 保延年間 (1135-1141년)의 창설로 칭해진다. 春日社에 속하는 平群의 이이무로자(飯室座)⁴⁷⁾는, 康治(1142-1144년)·天養(1144-1145년)간의 正文古案文의 전래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쿠고닌 이나 지닌 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座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쿠로다(黒田俊雄)⁴⁸⁾등도, 양자 사이에 발전 단계의 차를 보고, 쿠고닌과 지닌 등 영주층과의 예속관계와는 달리, 座라는 구성원의 횡적 연대조직에 근거한 결합과의 차이를 문제화 한다. 와키다(脇田晴子)도 座는 영주와의 공납품 수취뿐만이 아닌, 어떤 상품생산·상품유통을 전제로 했을 때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⁴⁹⁾

일반적으로 쿠고닌과 지닌은 그 봉사를 순서대로 시행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⁵⁰⁾日吉神社에서 長治3년 (1106년), 近江愛智郡에 있는 日吉保의 田堵(다토)⁵¹⁾의 백성 중에서 雉供御人을 택하여 日吉社 및 愛智新宮의 祭御供頭를 근무하게 했다. 그리고 제사의 御供頭를 맡은 이상 거기에 봉사자 집단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요컨대, 봉사자 집단으로서의 座는 지닌 이나 쿠고닌의 설치와 때를 같이 하여 결부된 것이나 헤이안(平安)말기가 되면, 상품경제의 발전에 따라 요류도(寄人)와 지닌 이나 쿠고닌 중에 영리 활동을 하는 자가 많아 졌다. 또한 특권을 획득하기 위해 상공업자 중에도 그 座에 참가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요류도와 지닌 이나 쿠고닌집단 중에는, 그대로 혹은 그 집단으로부터 분열하여, 상공업의 座로 활동을 시작하는 자가 있었다. 掃部寮의 諸国廷御作手는 天

44) 赤松俊秀 『町座の成立について』 (同 『古代中世社会經濟的研究』 所収、昭和47

45) 나라현 (奈良県)의 전지역과 교토(京都 府)의 남부, 오사카(大阪府)의 대부분, 효고현(兵庫県)의 남동부지역을 말한다.

46) 오오에노 미쿠리야란 현재의 오사카부지역의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한 국왕령의 땅

47) 이이무로좌란 무로마치시대의 麴座의 명칭

48) 黒田俊雄、座の構造論と宮座研究 (黒田俊雄と歴史学<特集>) 歴史評論 (528)、pp39-47、1994-04、校倉書房

49) 脇田晴子 日本中世商業發達史の研究 御茶の水書房 1969

50) 遠藤 元男、職人の組織としての『座』の一考察、社会經濟史学、3卷2号、東京帝大文学部、pp115-143、1933年

51) 헤이안시대의 장원, 국가영지의 논이나 밭의 경영을 담당했던 유력층 백성

永年間(1110-12년)에 창설되었다고 전해지나, 이 중의 大和의 作手는 가마쿠라(鎌倉)를 비롯하여 이미 座를 만들고 있었던 듯하며 建久 6年(1195년), 掃部寮는 大和筵座의 新座 정지를 호소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4-3. 座의 특권과 변화

座에 가입한 상인들은 座에 부과된 노역을 바치고, 특정의 봉사를 하는 외에는 영업세나 관세를 면제받으며 영리활동을 했다. 중세일본의 최대 규모인 오야마자키(大山崎)의 油지닌은 貞応(1222-23년)경 미노의 관문인 후와노세키(不破関)의 허락을 얻어, 동쪽지방으로 행상하고 있었으며 하카다(博多)의 国安의 油座도, 嘉祿2年(1226년)諸関津의 자유통행권을 다자이후(大宰府)로부터 받고 있었다.⁵²⁾

가마쿠라(鎌倉) 중기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알기 쉽게 명료한 판매구역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符坂의 油座도 이미 가마쿠라(鎌倉) 말기의 正和3年(1314년)에는 奈良市中의 기름 생산 및 기름 판매를 독점하고 있으며 東大寺 大仏殿油倉이 다른 곳에서 등유를 구입하는 것이 발각되어 유자의 방해로 油倉은 기름을 구입할 수 없어 곤란해 처했을 정도이다.

座의 독점은 이렇게 하여 本所인 莊園領主의 세력범위에 존재할 때는 그 영주안에 있는 座의 취득자별로 영업구역의 협정이 행해졌다. 座는 이렇게 하여 장원영주의 보호를 받고, 그 전매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상품유통이 확대해 가면 座의 독점 활동도 장원영주의 세력범위를 넘어 넓어진다.

奈良의 상인이 京都에 진출할 때는 春日의 지닌의 권위를 빌렸다. 大乘院寺社の 雑事記에는, 「中市의 簾屋(스다레야)은 京都지닌의 거래의 기둥이다」라고 할 정도 였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것을 후원한 무로마치(室町)幕府의 권위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뛰어난 원료를 갖든가 뛰어난 기술을 갖고, 풍부하게 제품을 팔아내는 座에 있어서는, 莊園의 한계를 넘어 각지에 판매시장을 획득하며 변화되고 있었다.

이무렵 각부서의 長官은 전국적인 과역 징수권을 세습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권리는 本座의 독점권을 옹호하는데 필요했다. 예를 들면 三条西家は 교토(京都)에 들어가는 모시商人으로부터 課役을 징수하는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和泉天王寺의 本座를 갖은 青苧座의 고소에 의해 에치고에서 신 상인이 모시 판매하는 것을 정지 시켰다.

그러나 장원영주의 권위가 쇠퇴해 감과 동시에 상공업자는 장원영주 하에서

52) 小西瑞恵、中世都市共同体の構造的特質 『中世都市共同体の研究』 思文閣出版、2000年、pp85-86

떠나 막부나 유력한 다이묘(大名)나 토호의 보호를 받아, 각자 지방영주 하에 들어가던지 座로서 정리통합 하여 지방영주에 세금을 바치게 되어 변화되어 갔다.

5. 근세 상인과 라쿠이치 라쿠자 의 등장

5-1. 라쿠이치 라쿠자(樂市樂座)

라쿠이치 라쿠자 (樂市樂座)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織豊정권과 각지의 전국 다이묘등에 의해 城下町(조카마치)등 지배지의 시장에서 행해진 경제정책이다.

라쿠이치 라쿠자는 기존의 독점판매권,비 과세권, 불입권 등의 특권을 가진 상공업자 (市座, 問屋등) 을 배제하여(free guild) 자유거래시장(free market)을 만들어 座(자)를 해산시켰음을 의미한다.⁵³⁾

關所⁵⁴⁾의 철폐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중세 상인의 고민이었던 시장세의 면제이다. 시장의 존재가 영주경제로서도 농민의 생활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 등장하자 시장보호도 시장 그자체도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 시장세의 면제이다.

중세일본에서의 시장상인이 시장세를 면제받은 기록은 元龜2年(1571년) 무사시(武蔵) 松山本郷 의 시장에서 세금과 노역을 면제하였고 天正18年7월(1590년) 아사다 나가마사(淺井長政)가 우라와(浦和)에 거주하는 상인들에게 모든 세금과 노역을 면제했다고 하였다고 한다.⁵⁵⁾ 시장세의 면제가 거래자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16세기가 되면서 무사들의 조카마치로의 이전으로 시장의 독점적 철폐를 이끌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중세시장의 특색인 市座가 부정되면서 일반적인 座까지 서서히 소멸되기에 이르렀다.

5-2. 円徳寺의 세이사츠 와 라쿠이치 라쿠자

天文18년(1549년)에 오미국(近江国)의 룩가쿠사다요리(六角定頼)가 居城인 観音寺城의 城下町인 이시데라(石寺) 에 樂市令을 선포한 것이 최초로 보고

53) John W Hall, Nagahara Keiji and Kozo Yamamura, Japan Before Tokugaw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359-361

54) 교통의 요지에 설치한 징세나 검문을 위한 시설

55) 豊田武、中世日本商業史の研究. 岩波書店、1944、p406

있다. 또한, 이마가와 우시자네(今川氏真)의 후지오미야 라쿠이치(富士大宮樂市)도 빠른 시기에 선포했다고 보고 있으며, 安野真幸의 분석으로는 織田氏 등의 이후의 다이묘에 의한 樂市습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⁵⁶⁾

그러나 세이사츠⁵⁷⁾制札 (법령의 공포) 로서 라쿠이치 (樂市) 및 라쿠이치라쿠자(樂市樂座)의 어구가 확인된 것은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가 처음이며 六角氏나 今川氏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라쿠이치의 어구가 확인된 것뿐이며, 제도로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노부나가 는 자신의 영토인 美濃国, 加納, 近江国, 安土, 近江国, 金森 등의 지역에 樂市樂座습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자기 영지 지배하의 각 다이묘들에게도 명령하여 각각의 죠카마치 가 실시되도록 하였다.

특히, 엔토쿠지(円徳寺)에 소장된 자료를 보면 노부나가 의 서판,(花押)이 된 자료로 永祿10년(1567년)에는 라쿠이치⁵⁸⁾만 1568년 9월에 모든 거래는 樂市樂座하에 이루어지며 강매, 난폭행위, 싸움, 말싸움 등 을 금지하며 어떠한 입시과세도 금지한다고 적혀있다. ⁵⁹⁾

이러한 배경 하에 상업은 발달하여 이시기에 이미 도매업자(問屋)가 등장하여 상점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많은 상품이 암시장에 까지 등장하였다고 한다.⁶⁰⁾ 아울러 최근에는 중세일본의 도시를 중세서구의 자유도시와 비교하여 樂市樂座를 과소평가하는 비판 즉, 상인에 의한 자치를 인정하면서도 실제에는 자치의 책임자는 어용상인, 관직경험이 있는 자를 쇼닌스카사(商人司)⁶¹⁾등을 다이묘가 임명하기 때문에 다이묘의 예속 하 에 있었다는 비판도 있다.⁶²⁾ 하지만 같은 시기의 중국과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제도조차 없었으므로 라쿠이치라쿠자는 봉건체제하에서 자유 시장, 자유도시로 가는 지름길이었기에 자유로이 상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만해도 당시로서는 대단한 사회의 움직임이었다고 하겠다.

56) 安野真幸, 樂市論—初期信長の流通政策、法政大学出版局、2009年

57) 세이사츠 (制札)라는 것은 금령·법규등을 개조서(箇条書)에 기록해서 길거리나 절, 사원 등의 정내 등에 붙여놓는 글귀

58) 発給者、織田信長 永祿十年十月、宛所、樂市場、所藏者、円徳寺 来住者分国往還保護、借錢·借米·地子·諸役免許、押買·狼藉·喧嘩·口論、理不尽之使、宿執非分停止

59) 宛所、加納、所藏者、永祿11年、円徳寺、当市場越居之輩の分国往還保障、借錢借米諸役免許、樂市樂座之上商売、押買·狼藉·喧嘩口論停止、使不入、宿取り非分停止

60) 宇佐美隆之 『日本中世の流通と商業』 吉川弘文館、1999年

61) 쇼닌스카사(商人司)는 쇼닌가시라(商人頭)라고도 불리며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 전기까지에 걸쳐서 다이묘들의 죠카마치에서 상인들의 통솔, 타지방상인의 검문, 5일장 등의 정기시 등을 개최, 흥행등을 이루었다.

62) 安野真幸 『樂市論—初期信長の流通政策』 法政大学出版局、2009年

5-3. 죠카마치 (城下町) 의 성립

죠카마치(城下町)의 성립은 전국시대로부터 시작되지만 성의 방위시설로서의 기능과 행정도시·상업도시로서의 기능을 포함한다.⁶³⁾ 일본근세의 城下町 발전의 최대의 공로자는 노부나가로 본격적인 병농분리를 의도하여 무사를 성 밑으로 집주시킴과 동시에 시내에 樂市樂座를 설치하여⁶⁴⁾ 상공업의 발달을 활발하게 하였다.

그리고 죠카마치를 더욱 발전시킨 사람은 히데요시로 토요토미정권의 정치경제의 중심이 되었던 오사카 죠카마치는 부의 집적지가 되었으며 에도시대에도 오사카는 상업의 중심지이며 천하의 부역으로 불릴 정도로 상품의 집산지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죠카마치가 발전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가치가 상승하여 죠카마치를 전란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등장하면서 해자(壕字)와 토루(土樓)로 둘러싼 성곽이 등장하여 성곽도시화로 가는 경향을 보였다.

城下町에는 도시방위의 연구가 보여 지는데 우선 적의 침공을 방지하기 위해 강이나 냇가 등을 이용하여 해자를 파거나 토루나 석담을 구축하여 강고한 성문도 만들었다. 성 옆에는 사무라이 촌, 하급 무사촌, 상인 촌, 사원 촌 등으로 배치되었다. 기본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 일수록 성에 가까운 위치에 집을 지었으며 하급무사들은 상인촌의 옆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⁶⁵⁾ 상인촌은 사무라이촌의 바깥쪽에 배치되었으며 상인이나 공인을 직종으로 분리하여 이주시켰다.⁶⁶⁾

중세봉건도시 즉, 죠카마치(城下町)의 성격은 城下町의 상공인의 町屋가 성의 외곽에 둘러 싸여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城下町은 원래 봉건제도의 필수 요소로서 봉건영주의 정치적경제적 힘에 의해 발탁되어 성의 외곽에 의해 둘러싸이고 보호되어 성주와 상인과의 관계는 운명을 함께 하는 운명공동체로서 중세의 무사계급의 보호아래 발전되는 형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⁶⁷⁾

城下町을 건설 할 때 영주는 여러 가지의 유치책을 강구 했다. 예를 들면 주택토지의 무상 교부, 토지세의 면세, 라쿠이치 라쿠자(樂市樂座)에 의한 거래의 자유의 보장 등 이라고 할 수 있다.⁶⁸⁾ 城下町의 동업집촌의 경향이 있어

63) 脇田修 『織田信長—中世最後の覇者』、中央公論社、1987年6月、pp72-77

64) 池享 『日本の時代史 (13) 天下統一と朝鮮侵略』吉川弘文館、2003年6月을 참고 할 것.

65)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유미노초(弓之町)、뿔포초(鉄砲町)등 이 이에 해당된다.

66)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呉服町·油屋町·大工町·鍛冶町 등 이 이에 해당된다.

67) 石田 一良, 町人文化—元禄·文化·文政時代の文化について、日本歴史新書、1961年、pp19-23

목수들의 동네인 大工町, 대장장이들의 동네 鍛冶町, 나무양동이목수들의 집성촌인 桶屋町 다다미장인들의 집성촌인 畳町 등이 설치되어 많은 城下町에서 공통의 지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城下町은 단일의 균등한 공간으로 형성되어있지 않고 이질의 공간도 사슬에 의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城下町의 공간적 구조는 城下町의 경관을 형성하는 것만 이 아닌 생활의 구조였고 봉건제도의 논리였으며 이념이기도 하였다.

城下町인구는 시대에 따라 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으면 7만명, 보통은5만인 이하 였다. 1707년 경의 岡山藩 에서는 영내의 서민의 인구 37만 명의 약 90%정도인 약 3만여 명이 城下町거주자로 城下町상인중 소상공인이 57%, 장인이 19%, 그 외에 교통업자, 이발소등이 24%였다, 일반적으로는 상인인구가 50%을 넘었다.⁶⁹⁾

또한, 소농자립경영이 일반화되면서 이것을 기초로 순수농촌의 형성과 유명 지주층의 城下町의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三斎市, 六斎市 등 정기시의 기능은 城下町의 상설된 점포상업의 흐름 속에 흡수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上田藩에서는 초기에 河野郷, 前山, 保野, 馬越등에 정기시가 있었지만 17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상인과 장인들을 城下町에 이주 시키면서 定期市 는 소멸되고 城下町의 상인 촌이 발전되었다.⁷⁰⁾

城下町은 무사의 소비에 의존했다는 것은 도시 내의 인구구성에서 상인의 인구구성과 비교해보면 무사의 인구가 무척 많다는 점은 말 할 필요도 없이, 무사계급인 사무라이 촌과 상인들이 거주하는 상인촌 과는 엄중히 구별되고 거리가 있어 무사들의 소비사회에 상인들을 끌어들이지 못하였지만 나중에는 城下町의 경제적 권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6. 맺는 말

중세의 서양도시의 내부구성을 볼 때 고대도시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경제적 활동을 위한 공통적 조직인 길드(guild)였다. 길드는 11세기경 상인길드로서 등장하여 12세기 이후 수공업자길드가 각지에

68) 宮本又次, 概説日本商業史、大原新生社、1971、pp47-52

69) 藤田貞一郎、宮本又郎、長谷川 彰、日本商業史、有斐閣新書、1978.p30

70) 藤田貞一郎、외 日本商業史 p28

성립되었다. 상인길드는 외지의 상인업자들 간의 경우에 조성된 상인업자 집단과 각 도시에 정주하는 상인사이에 조성된 상인업자단체이다. 수공업자길드는 수공업에 의한 마이스터-직인-도제라는 신분질서를 가진 도제제도이지만 마이스터 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동일업종의 동종업자집단이다.

중세일본의 길드로 불리는 座(자)는 장원영주에 소속된 本所에 의해 특권을 받은 상공업자, 교통운수업자등의 집단을 지칭하며 供御人(쿠고닌) 駕輿丁(카요초) 神人(지닌) 寄人(요류도) 등의 집단이 등장하여 초기의 자리를 이루었다. 일본의 중세전기에서는 장원경제하에서 座의 구성원인 座衆은 노동봉사와 공납생산한 대가로서 本所에서 과역면제의 특권 등을 부여 받았지만 중세후기가 되면서 자의 구성원인 座衆의 자립성이 높아지면서 봉사와 공납보다는 영업과 판매가 중심이 되었다. 중세의 일본 형 길드인 座(자)를 논할 때 동업협력체인 座를 중세경제구조의 특징이라는 점에 위치해 놓음으로써 권력과의 공생관계를 강조한 구조론 적 견해는 매매거래에서 자유스러운 근세의 상인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설득적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시민계급의 성숙이라는 문제점이다. 상인길드에 대항한 수공업길드는 서양의 시민계급의 성숙화로 이어지지만, 중세일본의 경우에는 노부나가의 라쿠이치 라쿠자 에 의해 일본 형 길드인 座는 해산되기에 이른다. 중세에서 근세로 이어지면서 무사계급의 등장으로 인해 죠카마치(城下町)가 설립되면서 상인계급은 무사계급이 만든 틀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인계급의 종속화가 이루어지며 시민계급의 성숙화는 사라진다. 그러나 근세의 상인의 경우 사농공상의 계급은 존재했지만 중세의 座의 조직하의 상인보다는 발전을 이루어 주변의 중국이나 조선보다는 상인들 보다는 商家, 大商家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要 旨

本 研究では 西洋のギルドが商人ギルドから手工業ギルドへ変転しながら市民の参与及び市民階級の成長に変化し、ギルドの解体が余儀なくされた点と中世日本において商人の登場と日本のギルドと呼ばれる日本の座、即ち、日本の同業者的組合形態であるギルド型の座の登場と発展、そして解体させられるまでを調べることにする。

言い換えれば、平安時代から戦国時代まで存在した日本の商工業者、芸能人などによる同業者組合である座を中心として中世日本における商人の登場と座の成立と普及、特権などを分析し、楽市楽座の登場として現われた座の廃止と解体などを中心に中世日本の商人の発展を調査する事にする。

キーワード：商人ギルド、手工業ギルド、日本の座、座の成立と普及、
座の廃止と解体、楽市楽座、中世日本の商人

투 고 : 2012. 11. 30
1차 심사 : 2012. 12. 15
2차 심사 : 2013. 1. 5